

8 월 30 일 2026 년



회복과 새로운 부흥

예배 초청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환영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함께
경배와 찬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함께
대표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이화선 집사
광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인도자
설교 전해야 할 복음 (고후 6: 1-2) 이진수 목사
결단찬양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다함께
축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이진수 목사



헤이워드 침례교회

24742 La Playa place Hayward, CA 94545 Tel: 510-732-9191

Fax: 510-732-1912 교회 홈페이지: hkb.church

“자랑스러워하는 인생”(히브리서 11:13-16)

사람들은 보통 많은 돈을 번 사람, 사람들이 알아주는 직업이나, 중요한 일을 했거나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참된 성공한 인생이란 그러한 겉에 보이는 성공이 아닌 누군가 나를 진정 인정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삶일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랑스럽게 여김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누군가에게 알릴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자랑스러웠다는 말씀이 본문에 나옵니다. 13-16 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이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떠나 살았지만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신 것은 이들이 믿음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란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 출장 나온 인생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90-100 년의 짧은 인생 후에 영원한 지옥과 천국이 있기에 진정한 성공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벌었고 모았고 누렸느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다 놓고 가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명예, 학력, 부와 인기, 이루어 놓은 것 다 놓고 갑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살 하늘나라를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상, 보화를 쌓아 놓았느냐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진정한 행복과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출장 나온 인생임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곳, 우리가 영원토록 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천국 본향에 시선과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살 것을 알고 마음을 두고 살 때 이 땅에서 겪는 어려운 일들, 억울한 일들, 손해 보는 일들, 힘든 일들도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여기며 세상 사람들이 보일 수 없는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인생이 됩니다.

교회 소식

1. 환영 -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2. 영어 예배 - 2 부 영어 예배가 1 시에 드립니다.

영어권 분들에게 알리고

초대해 주십시오.

3. 교회 대청소 - 오늘 주일예배 후 교회

대청소를 합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4. 성찬식 - 9 월 6 일 주일 예배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5. 부장 모임 - 9 월 6 일 주일 오후에 부장

모임이 있습니다.

6. 창립예배 - 9 월 13 일 주일 오후 4:30 분에

교회 창립 50 주년 예배가 있습니다.

행사 및 모임

9 월	성찬식	9 월 6 일 (주일)
9 월	창립 50 주년 예배	9 월 13 일 (주일)
9 월	각기관 월례회	9 월 27 일 (주일)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8/30	9/06	9/13	9/20
대표기도	이 화선	정 병철	조 정욱	조 현숙
헌화성도	손 정임	차 은희	이 강선	한 용찬
봉사당번	각기관월례회	믿음구역	소망구역	소망구역

예배 출석자 및 헌금

지난주 예배 출석	
지난주 헌금 통계	

후원 선교지 안내

구역	구역인도자 구역장	연락처	선교사
사랑구역	유 경주	510-634-9374	정 주환(소망공동체)
	유 경애	925-719-3673	장 철호 (미얀마)
믿음구역	심 영민	415-205-2631	박 완주(헝가리집시)
	손 정임	808-277-1072	K 선교사 (Malaysia)
소망구역	김 영란	510-468-4720	김 정림 (탄자니아)
	한 영미	510-410-8718	조 항권 (우간다)

성경공부

새가족 성경공부	4 주
확신의 삶	7 주
TEE 성경공부	12 주
성경 통독방	52 주

이제야 인생을 좀 알 것 같습니다

종종 선배 목사님들이 쓰신 칼럼들을 찾아서 읽습니다. 짧은 글이지만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깨닫지 못하고 바쁘게 살던 삶을 돌아보며 중요한 것을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이번에 읽은 글 중에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글이 있어서 나누어 봅니다. "이제야 인생을 좀 알 것 같습니다" 라는 아래의 글입니다.

나이 60 이 넘고 이제야 좀 인생의 맛을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젊었을 때는 이걸 몰라서 그렇게 해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몰라 그렇게 힘도 많이 뺐던 것 같습니다. 이걸 몰라 답답한 생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야 인생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지식이나 머리로 인생을 다 배우지 못합니다.

젊음은 너무 좋고 패기가 있고 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젊음이는 경험이 부족하니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늙으면 지혜가 자동 생산되는 것도 아니기는 합니다. 늙어갈수록 추한 이도 많습니다. 이제야 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인생은 내 맘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좀 깨닫고 나면 살만 한 게 인생입니다.

이제 깨달은 것을 여기 나열해보고자 합니다. 열정을 갖되 조금증을 버리자. 차분함으로 하되 게으르지 말자. 차근차근, 서두르지는 말자. 분수를 알되, 냉소적이 되지 말자. 큰 목표를 갖되, 작은 일에 충실하자. 활발하되, 들떠있지 말자. 진지하되, 가라앉지 말자. 힘을 다하여 영혼 섬기되, 기대를 품지말자. 이웃을 사랑하되, 자신도 돌보는 중에 하자.

이것도 깨달았다고 머리로 생각하면 살아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매일 매일 하루 하루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를 쏟아 부어 자신의 내면을 훈육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자신을 과신하면 항상 오류에 빠집니다. 내게서 선한 것이 솟아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겸손히 자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서히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 이렇게 살지 못했어도 이제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지혜롭게 살아보려 합니다. 착하되 살되, 바보같이 살지 말아야 합니다. 내면을 강인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야 하지만, 우리 일상은 너그럽고 온유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쉽게 이것이 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성숙은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도 엄청 필요합니다. 하지만 늙어서 성급하고 조급하면, 게으르고 나태하면 재앙입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Worship services & Meetings*

주일대예배 <i>Sunday Main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본당 <i>Main Sactuary</i>
어린이예배 <i>Sunday Children's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유치부실 <i>Children's Room</i>
영어예배 <i>Sunday English Service</i>	주일 오후 1 시 <i>1:00 P.M.</i>	영어부예배실 <i>English Service Room</i>
주일성경공부 <i>Sunday School</i>	주일 오후 12 시 <i>12:00 P.M.</i>	유년부실 <i>Group Class Room</i>
새벽기도회 <i>Morning Prayer Meeting</i>	매주 화-토 6 시 <i>Daily T-Sat 6 a.m.</i>	본당 <i>Main Sactuary</i>
구역모임 <i>Local House Meeting</i>	매 월 <i>Monthly</i>	구역별 각가정 <i>Local church member's home</i>

섬기는분들 *Church's Servants*

담임목사:이진수 <i>Sr. Pastor: Timothy Yi</i>	510-415-0671	timjdsn@gmail.com
어린이교회: 이은진 <i>Children's Ministry: Joy Song</i>	510-415-1696	Ejoysong@gmail.com

교회약도 *Church Map*

